

P10. 해양심층수의 수산분야 활용현황 및 향후 전망

김 홍 기

(한국해양심층수협회,고문)

1. 서론

한국은 2011년부터 심층수를 수산물의 인공부화와 축양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매년 약20%씩 사용량은 증가하여 2013년에 인공부화에 약 39만 톤과 축양사업에 약 311만 톤으로 총합계 350만 톤의 해양심층수 사용으로 국내 총취수량 370만 톤의 94.5%를 사용하고 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부화와 축양이외의 수산양식과 다른 산업분야에 사용된 실적은 전혀 없다.

2. 본론

한국의 자원적인 활용분야인 수산분야에는 강원도의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한곳에서 수산물의 인공부화로 통상가격의 7.4%에 불과하고 또 취수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740원/톤의 가격으로 2013년 약 39 만 톤에 달하는 해양심층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. 한국은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였고 또 일본의 공영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아주 저렴한 특수정책가격으로 해양심층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또 다른 활용분야는 해양심층수의 개발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수입수산물의 보세창고 형태의 축양사업에 2013년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약12억 원의 보관료 수입을 얻었다.

해당회사는 축양시설를 직접 운영하여 자가 소비형태로 해양심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의 공급가격은 별도로 산출할 수 없다. 따라서 보관료수입 12억 원을 해양심층수의 사용량으로 계산해 보면 톤당 약 400원 밖에 되지 않아, 낮은 수익률로 파악된다.

해양심층수를 수산에 사용하면 병충해로 인한 폐사율은 낮고 성장속도가 2배 빠르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득에 관한 각종정보는 단편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, 미국과 일본은 수산업에 해양심층수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.

3. 결론

해양심층수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업에 참여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반대의 사업도 없다. 오로지 What To Do가 아닌 How To Do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.

또한 모든 사업은 사업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 순리적으로 추진하여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.

한국의 해양심층수사업은 정부당국과 학계 및 업계가 모두 힘을 합쳐 그 동안의 사업추진 내용과 미국과 일본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조사연구를 한다면 반드시 해결방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.